

# 도농상생의 교류증진을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조 록 환 박사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관광연구실장

## 1. 머리말

2002년부터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농촌관광 마을은 2005년 현재 4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농촌 관광마을은 정부 각 부처별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농촌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흐름은 농촌의 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농촌소득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농촌관광을 통한 소득화 방안에는 농촌민박, 농촌체험, 농촌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관광이 농가의 진정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에서 농가나 공동 시설에서 민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험은 마을에서 하고 잠은 인근 여관, 호텔, 콘도, 펜션 등에서 이루어진다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면은 많지 않을 것이다. 농촌마을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는 물론 식사비가 증가할 것이며 마을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직거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농촌마을이나 농가에서는 도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쉬어 갈수 있도록

민박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금요일 저녁부터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농촌에서 보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피서를 떠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농촌의 정취를 느끼면서, 휴양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게 되면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휴식을 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한편 농업인에게는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마을과 농가를 잘 가꾸어 마을을 활기차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필자가 전국에 농촌관광마을을 탐방하여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 편안한 휴식공간 만들기

도시민들이 바라는 편안한 휴식공간은 체험마을의 잠자리에 누워 하늘을 보았을 때, 낮에는 숲을 볼

수 있으며 밤에는 달과 별을 관찰할 수 있으며, 농촌의 문화와 정취를 느끼고, 대자연의 맑은 공기와 신선하고 몸에 좋은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다. 또한 화장실과 욕실이 도시에서와 같이 편리한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농촌에 와서 도시의 호텔, 여관 등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와 편안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이 주는 초록색공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친근감과 편안함을 준다. 우리농촌에서는 초록의 공간을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전국 농촌관광마을을 탐방한 결과는 초록의 공간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을 공동시설로 체험장, 회관, 식당 등을 건설하면서 주위의 나무를 베어내고 행하게 건물만 덩그러리게 놓은 경우가 그런 예이다. 농촌의 대자연이 그리워 찾아오는 도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나무와 숲이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것이다. 주위에 나무가 없는 시설공간에 원하는 풍광을 고려해서 적절한 나무를 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방객들이 방안에 누워서 나무들의 계절적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나무와 숲을 잘 살려서 도농교류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하면 보다 휴양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 자연휴양림을 즐겨 찾는 도시민의 말은 방안에 누워서 봄에 새싹을, 여름에 녹음을, 가을에 단풍을, 겨울에 눈꽃을 볼 수 있어 계속 찾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와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과 욕실이다. 이 점은 도농교류를 통한 도농 상생의 실현을 위해서 지나쳐서는 안되는 요건의 하나이다. 일례로 농촌관광마을 내방객이 적은 소감 중에 “화장실이 우울합니다” 라고 방명록 첫 페

이지를 장식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꾸며 놓는것이 도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장실문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공공시설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이 생긴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을 몇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농촌도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면서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가꾸어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단양의 한드미마을은 생태마을 가꾸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관광마을이 아니라 생태체험과 학습의 장으로서 마을을 가꾸어 간다고 한다. 지도자는 마을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를 하나씩 걷어 내고 자연과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라 한다.

처음 필자가 한드미마을을 찾았을 때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마을보다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보였던 것이다. 마을안길을 깨끗하게 돌담으로 만들었고, 길가에는 꽃나무와 잔디를 심어 놓은 곳이 있었고, 어떤 농가는 담장을 헐고 꽃나무와 돌로 가꾸어 놓기도 하였다. 이 마을은 대통령 내외분이 다녀가신 곳으로 유명한 마을임을 생각할 때 노력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촌의 전통문화와 정취를 느끼면서 건강성과 편리성을 함께 추구해 가기를 도시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 3.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여러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이제 마을 내방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소재와

진행을 통하여 도시민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 살리기와 도시의 여가복지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자원을 체험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농촌도 종래의 농업중심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다 발전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에 힘을 기울여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수요가 농촌마을에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용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코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소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면 앞으로는 해설과 진행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재미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기마을만 가지고 있는 소재부터 찾아서 역사적, 현대적 자료를 찾아서 해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역사와 이야기가 없는 체험은 단순한 경험에 지나지 않아 농촌관광객에게 오래 기억되지 못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재방문과 신규수요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전국의 마을들이 흔히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얻

기란 힘들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마을의 역사와 해설이 감칠맛 날 때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건강/강장의 코드와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훌륭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이 건강/강장의 코드와 연결되도록 구성된다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소재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도시민들은 농촌에서 체험을 할 때 같은 체험이라도 보양, 강장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같은 딸기따기 체험이라도 한방딸기, 유기농딸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 번 더 체험해 보려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도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풀어 나가지 않으면 농사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요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해설을 통하여 더 깊은 이해와 감동으로 이어지면 결국 농특산물 구매와 연결되게 된다.

셋째, 농촌체험프로그램에도 색깔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흥미와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농촌관광마을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색깔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다. 농산물이 지니는 고유한 색깔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수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예를 들면 자주색감자와 흰색감자를 하나의 포장에 일정한 면적씩 구분하여 심거나, 혼식하여 체험객들이 쉽게 비교하면서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넷째, 장애인을 배려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회복지사업과 연계를 한다. 장애인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돕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보람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인들에게 무료체험을 하는 마을도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니 함께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을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봉사자들의 가족이나, 단체에서 재



▲ 수박과 호박의 조화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섯째,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소재의 희귀성, 특이성을 찾아 주도록 하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알차게 하려면 체험소재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자기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희귀하고 특이한 소재를 찾아 체험학습과 놀이가 되도록 만들도록 한다. 희귀한 소재를 발굴하게 되면 관련된 이야기와 역사를 찾아서 기록하여야 한다. 마을어른들을 통하여 역사이야기를 찾아보고, 문헌을 통하여 건강, 활동도 등을 찾아서 해설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여섯째, 과학성에 입각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과학적인데 대하여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제대로 답이 안될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실망하게 된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체험의 목적이 학생에게 산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리와 관련된 체험을 할 경우 봄에 심은 보리가 싹이 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춘화처리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설명해 주면 효과적이다. 또, 참외를 냉장고에 넣어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먹어보고 단맛을 비교하는 체험도 과학성에 근거한 내용이다. 단맛은 온도가 차를 경우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일곱째, 예술과 접목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하자. 농촌자원을 활용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기 위해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전시하고 시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차 체험소재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한다. 과일조각가와 함께 과일조각작품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각기법을 습득하는 마을주민들이 익혀서 직접 진행한다던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수박조각의 경우 수박축제때 농촌주부들이 직접 익혀서 활용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 미술작품의 소재로서 농산물이 활용될 수 있게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자.

#### 4. 농촌주민의 역량 강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도농교류의 실현은 농촌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무장이다. 농촌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서로 협력하여 실천할 때 마을이 가지는 장점을 살리게 된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자기마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도 많다고 한다. 태안 벗가리마을, 이천 부래미마을 등의 주민들은 사업하기 전에 비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의 선진마을이라는 인식과 함께 마을 견학 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한다.

마을지도자들은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함께 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을단위 교육과 견학을 통하여 농촌경영기술을 습득하고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한다. 마을지도자들은 교육을 받고 주민들은 교육을 직접 받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마을지도자는 마을주민들을 각 분야별로 재능을 개발하여 담당역할을 부여하고 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창의력개발에 투자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민박팀



▲ 수박조각작품

장과 팀원에게 민박학습기회를 부여하며, 체험팀은 체험관련 자료정리 및 해설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마을발전에 헌신적으로 도와줄 전문가의 확보도 마을주민의 역량개발과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을 익히고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마을주민의 역량이 날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성공한 마을에는 초창기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고,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한 마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객들에게 진심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5. 국민여가복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 (농촌/농업+관광 → 농촌/농업+관광+복지)

농촌은 주5일제 확대실시에 따른 국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새로운 역할을 실천해 가고 있다. 주5일제 실시로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소득은 변화가 없는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한정된 소득으로 늘어나는 여가를 활용하려고 보면 저렴하고 보람된 방법을 찾게 되는데 도농교류야 말로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에서 맑은 공기와 신선한 농산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갈 때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 가서 식탁에 올리면 가격면이나 건강에 좋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앞으로 도농교류상품도 건강상품개발과 투자가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원예치료, 동물요법 등 치유를 위한 체험상품이 과학적인 사실을 토대로 개발되어 복지의 공간으로 터전을 잡아 갈 것이다. 농촌의 건강장수적인 이야기와 소재를 테마로 하는 상품이 개발되어 도시민에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도 함께 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농촌과 농업을 관광과 접목했

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노력에다 국민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농촌이 국민복지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즐겁게 여가를 보낸다면 여가복지, 어린이들이 농촌에서 산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교육복지, 농촌에서 직접 생산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매한다면 경제적 복지, 농촌에서 휴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경우 건강복지 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 농촌은 국민복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도농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 6. 맺는 말

많은 도시민들이 휴가를 농촌에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도 도시민들이 즐겁게 휴양휴식을 취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마을의 모습을 바꾸려고 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전통문화 및 마을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도시민과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휴양휴식, 학습 등은 도농상생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복지의 일환으로 우리 농촌이 기여하는 바가 크며, 건전한 여가복지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휴양생활의 일환으로 농촌을 방문하여 맑은 공기, 쾌적한 공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고 돈벌이로서 도농교류가 아닌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국민의 여가생활, 복지, 교육,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농촌은 항상 창조의 힘이 있는 것이다.